

연구자와 실천가의 파트너십을 통한 환경교육 실행 연구

: 송남초등학교 거산분교 사례3)

이재영 · 최은희

공주대학교 · 송남초등학교 거산분교

1. 취지 및 배경

- 환경생태교육 및 인성교육을 위한 새로운 전형 마련
-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환경체험학습을 통한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제공
- 교과간, 단원간, 학년간 통합을 통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환경교육 실시
- 소규모 농촌학교에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활용
- 학교 안팎의 자연 소재를 활용하면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체험하고 참여하고 표현하는 환경교육 모델 개발

2. 목적

-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탐방형, 참여형, 표현형 환경교육 모델 개발·적용

3. 기간

- 2003년 1월~2003년 12월(1년)

4. 추진 기본 방향

- 가. 체험유형의 다양화(탐방형, 참여형, 표현형)를 통한 환경교육 실시
- 나. 교육과정 운영을 주제, 공간, 단원, 학년간 통합 방향으로 지향
- 다. 네트워킹을 통해 자원, 지원 그룹(개별전문가,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역사회 자원, 학부모)을 형성하여 교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 향상
- 라. 과정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에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
- 마. 학생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바. 창의적이고 학교 실정에 적합한 환경학습장 설치 및 학습 교구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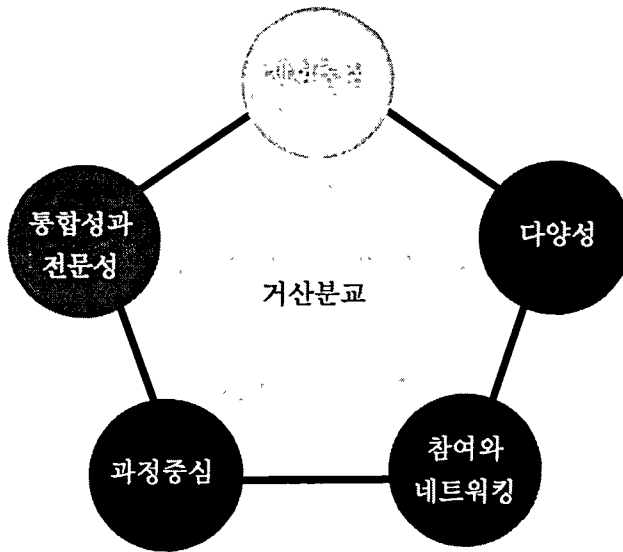
5. 학교 현황

- 가. 아동 실태 : 송남초등학교 거산분교장 전교생 124명 (6학급)

3) 본 원고는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주최 2003 대안학교 심포지움에 발표된 원고에 평가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 작성한 것임.

나. 지역실태

- 아산시 인접지역으로 전담위주 소규모 영농형태의 축산업, 버섯 재배, 관광농업, 사업, 공장근로 등에 종사하며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음
- 국도 39호선 변에 위치, 교통안전 사고 위험이 높음
- 학생수 감소로 폐교 위기였으나 아산·천안 지역 학생들의 전입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여 6학급으로 편성됨



<그림 1>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추진 기본방향

다. 체험환경교육 공간의 적합성

- 자연조건: 학교 주변에 산, 들, 하천이 있어 경작지 확보가 가능하며, 체험환경교육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환경
- 인적자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개별전문가,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역사회 자원, 학부모 등의 네트워크 구성
- 교육과정 운영: 2002학년도부터 환경체험학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라. 연간 운영계획 구성

학년 교육과정을 분석한 뒤 목표와 내용에 가장 적절한 수업형태와 활동유형을 구안하고 적용하는 환경체험학습을 실시한다. 아울러 본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체험학습은 크게 탐방형 체험학습, 참여형 체험학습, 표현형 체험학습으로 나누어진다.

<표 1> 참여 주체별 주요 활동 내용

주 체	주요 활동 내용	비고	
아 동	탐방형	탐사학습, 기행학습, 견학학습, 조작학습	
	참여형	텃밭 가꾸기, 우리 들꽃 가꾸기, 동물 기르기, 벌 기르기	
	표현형	표현하고 느끼는 활동, 뛰어 놀면서, 실험하며, 생각하며 토론하며, 자연과 함께	
교 사	교육과정 분석, 환경 교육 연수, 조사 및 견학, 수업 활동안 구안 작성, 실행 후 평가 및 보완		
지원 집단	거산환경교육 자문단 구성-지역주민, 민간(환경)단체, 공공기관(지자체), 학부모, 개별 전문가 등		

6. 실행 후 평가

가. 성취도 평가

(1) 생태교육 프로그램(학교숲)과 관련하여 수업 중에 혹은 전후에 학생들이 변했다는 것을 느낀 경우가 있습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식물이 자라는데 땅이 기름지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꽃이 진 자리에서 열매가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함.
- ◎ 닭, 토끼, 거위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동물의 생태를 알게 됨. (짜짓기를 통해서 유정란이 생긴다는 사실도 알게 됨. 수탉은 암탉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됨.)
- ◎ 동물은 사람이 밥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고 똥을 치우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는 사실도 알게 됨.
- ◎ 돌레를 보는 감수성이 달라지고, 자신들이 생명을 기르고 가꾸는데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함
- ◎ 작업 능력 및 농기구를 사용하는 법이나 기능이 향상되었음(삽질, 팽이질, 고추 심기, 고구마 캐기)
- ◎ 식물의 생육과정을 몸소 체험을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소중함이 눈에 띄어 (예를 들면 봄에 수세미 씨앗을 포토에 심어 싹을 틔우고 화단에 옮겨 심고 매일 아침 물을 주어 길렀는데, 수세미가 자라 본관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머리에 닿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수세미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수세미에 머리가 닿지 않도록 피해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담당 학년인 2학년 아이들은 아침마다 수세미의 키를 자로 재보고, 새롭게 열린 게 몇 개인지 찾아보는데 정신을 쏟는 걸 볼 수 있었다.)

(2) 생태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작년과는 다른 누적적 효과라고 생각되는 변화가 있습니까?

◎ 동식물이 잘 자라야 사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학교에 있는 꽃이나 나무를 꺾지 않음

◎ 일회성 행사 중심의 환경교육에서 벗어나 일상의 교육과정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다 보니 어린이들이 이벤트적인 사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학습의 일환으로 수용하고 참여함

◎ 작물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작년에 경험했던 텃밭활동과 관련지어 발견해 내며 해마다 실시하다보니 연중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및 자연의 변화, 조건에 대해 터득함

◎ 사람을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이 아닌 사람도 자연을 이루는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들레의 모든 생명이나 자연들과 함께 공존한다는 사고로 바뀌어 나감을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작은 벌레나 꽃을 꺾으면 꽃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비난하며 꽃이나 물이나 나무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함)

◎ 들레에 있는 꽃이나 나무, 곤충의 이름이나 특징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우리 꽃의 소중함, 아름다움을 알고 좋아함

◎ 소풍이나 야외체험학습을 갈 때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점차 줄어들었으며, 학교에서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은 일회용 종이컵이나 나무젓가락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교사, 학부모, 어린이가 함께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

◎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자기들이 기른 작물의 열매를 먹어 보면서 편식하는 습관이 고쳐지는 경향도 보임

(3)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과 통학하는 학생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습니까? 혹은 있다가 없어졌거나 없다가 나타난 차이가 있습니까?

◎ 주변에 사는 아이들보다 통학하는 아이들이 주변 환경변화에 관심이 많아짐(버스로 오고가며 단풍이 든 것도 자세히 보고 서리가 내린 모습도 자세히 보고 서리가 내리면 식물의 잎이 살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됨. 또한 사계절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터득함.)

◎ 지역 아이들이 알고 있는 자연 현상이나 동물, 작물의 특성에 대해 통학하는 아이들이 부러워하며 지역 아이들은 자부심을 갖고 친절하게 알려줌(까마중이나 수수, 고추 따는 법, 물고기 이름(중대기), 꽃 이름, 나무 이름, 동물(닭, 거위, 토끼)의 습성이나 먹이 따위를 알려주며 자긍심을 느낌)

◎ 지역 아이들이 문화공연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며, 서로의 집에 가서 자고 오며 서로 다른 삶의 터전을 경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아 나가는 활동을 많이 함)

◎ 지역에서 열리는 마을잔치에 통학하는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며 학교 일이나 아이들의 문제를 논의함

(4) 학생들 중에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특히 열심이거나 아니면 매우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아이가 있습니까? 특히 소극적인 학생의 참여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극적인 아이의 유형: 둘레의 사물에 관심이 많아 주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 개인적인 호기심에 몰두하여 흥미를 잃은 아이, 성과물에만 관심이 있을 뿐 힘이 드는 일을 회피하는 아이들이 있으며 지역 아이들보다 비교적 도시에서 전입해 온 아이들이 소극적인 경향이 많음. 또 도시 아이들의 경우 흥미와 관심은 많으나 지속성을 갖고 끈기 있게 참여하는 경향이 적은 편임.

◎ 개인적인 호기심에 몰입하는 경우, 지나치게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흥미와 격려를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함

◎ 생산물에만 관심이 많은 아이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아이들 스스로 규범을 만들게 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의 양이 달라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피하는 경우,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여 적극성을 유도함(예를 들면, 동물 키우기 활동이 자생화 화단 가꾸기보다 일이 많고 힘들다고 호소할 경우 가축의 생산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하며 적극성을 유도하는 방법임)

◎ 소극적인 아이는 생태교육을 하면서 생긴 생산물을 특별 보너스로 주면서 격려해주거나 구체적인 과제나 역할을 제시함.

(예를 들면, 토끼 밥 주는 당번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동물을 지정해 주면서 강아지를 돌보라고 한다든지 날마다 꽃밭에 물을 주라고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활동에 흥미와 관심, 책임감을 갖게 함.)

◎ 모둠별로 역할이나 활동을 제시해주며 모둠 구성원이 모두 참여했을 때는 생산물을 분배해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

(5) 특히 표현형 학습의 경우 주목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나 형식을 보인 학생이 있습니까? 집단적인 수준에서의 변화가 관찰된 것이 있습니까?

▶ 경향성에 대한 논의

◎ 동물이나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는 버릇이 생기는데 참여형 학습을 하고 나면 표현학습을 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자세히 살펴봄

◎ 자연현상에 대해 신비롭고 놀라워 함

◎ 세밀한 표현력이나 묘사력이 향상됨

◎ 동식물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토론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고 있음

◎ 갈등 상황에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함

▶ 교사의 학습 의도와 다르게 반응하고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

◎ 옥수수 밭에 전시된 그림책을 보여주며 그림책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했으나 아이들이 표현한 활동을 통해 살펴보니, 옥수수 수염 및 생김새를 더 강조하여 그리고 흥미를 보이는 것을 알게 됨

◎ 체험한 것을 오랫동안 학습자 내부에서 고민하고 걸러내어 표현하기가(체험한 시간 만큼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 보니 표현활동이 형식적으로 나타내지거나 과제로 제시되는 문제를 낳기도 함

◎ 체험학습 실시 뒤에 다양한 표현 활동을 찾아서 아이들이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사람마다 서로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해야 함

◎ 체험학습을 통해 얻은 나름의 사고나 가치를 통해 다른 교과 활동에서 적절하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 줌

(예 : · 이라크 파병 반대→동물을 보호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 목숨을 함부로 죽이는 전쟁은 더더욱 반대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곳에 우리나라 군인을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

· 가을 산에 갔을 때 나뭇잎이 바람에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며 겨울 탐조기행의 경험을 떠올려 마치 새가 한꺼번에 밀으로 내려앉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 자연 체험 학습을 할 때 나무를 만들 때 나무의 잎사귀, 다람쥐, 청설모, 줄기 따위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며 나무와 동물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생태계의 원리를 나타낸다.

· 국어 교과에서 조약돌이 나오자 냇가에서 물고기를 놓아주었고, 조약돌을 다른 사람도 보라고 놓고 온다.)

나.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평가의 기본적인 방향이 ‘현재의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하되,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면 지도계획과 자료 등을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운영과정을 정교하게 다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전체적인 틀 - 즉, 3가지 체험의 유형과 통합적 접근 - 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1) 프로그램 기획 단계

1) 탐방형과 참여형의 주제나 활동 내용은 타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활동내용이나 주제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타당성 있게 구성되

었으나 교사의 업무나 역할이 많은 상황으로 인해 활동에 대한 부담이 크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있음

◎ 교육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내용이나 영역, 교과간의 통합이나 학년간의 통합, 공간의 통합들을 적절하게 계획하고 실시해야겠음

◎ 탐방형 학습의 일부 프로그램이 지난 해와 내용이나 질적으로 변별성을 갖지 못한 경우가 있어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차별성 및 학년의 학습자 요구와 흥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배치해야 함)

◎ 어린이의 학습활동이나 생활 공간이 통일을 이루는 참여형 체험학습으로 교육활동이나 효과를 거두는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남 (공간의 이동이나 통합이 활발하고 자유자재로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의 자주적인 학습 능력을 증가시켜 주었으며, 자기들이 할 활동을 자주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함)

◎ 탐방형 프로그램 가운데 시간이나 공간의 적절성을 고려하지 못한 활동(갯벌 체험이나 창녕 우포늪 탐사)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천하지 못함. 이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상황이나 여건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배치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반성을 하게 됨

◎ 참여형 체험학습을 통해 학습한 결과(체득하여 얻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이후 주체로 활동하게 될 학년(학습자)에게 적절하게 전수해 주는 방안을 찾아 실천해야 함

2) 학교의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의 횟수나 규모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프로그램 횟수나 규모는 적절하다고 생각함. 다만 학년에 따라 별도로 실시되는 체험 학습의 일정을 고려하여 시기나 횟수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됨

◎ 학년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탐방형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교과와 적절하게 연관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내년부터 외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 지금까지 진행해 온 본교의 특색 사업인 환경 체험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지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해 연계성을 잃어버린 활동이 될까 우려 됨. 자체 학교 운영경비에서 환경체험학습으로 예산을 집중 운영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 따라서 연계성을 획득하고 환경체험학습으로 얻은 교육적 효과들을 잃지 않기 위해 적절하고 다양한 외부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전망을 세울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됨

3) 차기 년도 교육과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부 삭제, 교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생 , 학부모, 외부전문가는 지금으로 만족하나 동물 기르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의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함

- ◎ 학생들이 올해의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하는 게 많다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다고 보나 참여형 체험학습인 텃밭 가꾸기, 자생화 기르기, 동물 기르기는 지속성을 갖고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동물농장 닭똥 치우는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음.
- ◎ 음식물 쓰레기 및 동물의 배설물을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과정과 관련지어 모색하여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 ◎ 풀벌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학습자에게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조사하거나 의문점 따위를 찾아오게 하여 학습자가 교육활동에 적극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육내용을 묶은 자료집 배부도 고려해 볼만함)
- ◎ < 노래로 여는 환경 교실>은 학년별 특성에 맞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해야 하며,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래를 통한 환경교육은 어린이에게 인식의 심화를 가져오는 교육적 효과는 있으나 활동 내용의 차별성이나 변별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후 프로그램 계획할 때 삭제나 활동 횟수의 축소 따위를 고려해보아야 함

< 2003년에 환경체험학습의 프로그램 가운데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는 “우리밀 가꾸기” 활동>

- ◎ 생태적 감수성과 생태적 상상력이 균형 있게 발달시키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일회적이거나 부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교에 밀을 심고, 기르고, 거두어 밀가루를 빻고 그 가루를 이용하여 빵을 포함하여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생산-소비-처리를 포함하는 하나의 완결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자 함
- ◎ 우리밀 가꾸기 체험 활동을 통해 농약 투성인 수입 농산물(수입밀)의 폐해를 이해하고 늦가을 이후 이른 봄까지는 마땅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실내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밀가꾸기는 프로그램 틈새를 메우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 우리밀 가꾸기 국민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 사업과 연계하여 내년에는 보다 확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밀 가꾸기와 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프로그램 운영 단계

1) 실행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학년별로 3가지 체험 활동 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특히 좋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 동물 키우기는 아이들이 좋아한 것 같으나 담당학년 아이들이 똥을 치울 때는 힘

들어하고 후회를 했음. 닭이 달걀을 낳는 것을 보면서 차츰 위안이 됨

◎ 참여형 체험학습 가운데 텃밭의 작물을 심고 가꿀 때 씨앗을 직접 심고, 모종을 길러 밭에 심고 가꾸는 활동을 매우 흥미로워하며 전 과정을 자신들이 직접 실천했다는 것에 만족감과 자신감을 나타냄

◎ 참여형 체험학습은 지속성을 갖는 활동이므로 아이들이 자주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기도 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보임

◎ 자생화 화단 가꾸기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자생화 영상 교육을 실시하여 기르고 싶은 꽃을 직접 고른 뒤 그 꽃의 특성에 대해 공부하여 가꾸기에도 정성을 들임. 그러나 꽃이 쉽게 피지 않거나 생육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 시기에는 관심이 줄어들었으며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 방법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꽃에 대한 관심과 소중함, 긍지를 갖는 태도가 보임

◎ 꿀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학습에 참여하는 열의도 무척 좋았음, 따라서 다른 학년들이 꿀벌교육을 받는 것을 몹시 부러워하였으며 어린이들이 벌에 대해 갖고 있던 막연한 공포심이 없어지고 벌의 습성이나 생태들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아는 효과가 나타남

◎ 고무마 캐기나 고추 심기 따위의 활동을 할 때 학년별 학습내용이나 교육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학습목표에 따라 아동들의 활동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며 참여시키는가에 대한 방법이나 내용이 미흡함

◎ 우리 학교가 환경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히 높으며 어린이나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모두 만족감을 나타냄, 다만 과정이나 내용의 적절한 조정을 교육과정의 검토를 통해 학년초에 교과 및 영역간의 통합에 적절한 환경체험학습 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2)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부여되는 교사의 부담은 어떠했습니까?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업안을 짜고 활동 내용에 적합한 표현활동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교사가 활동의 상황이나 아동의 반응, 결과물의 분류 따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름. 교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수업안을 특별한 경우에만 짜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음

◎ 담당 교사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교사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스럽고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가 발생함.

◎ 교육활동의 결과가 이론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정리되어야 하는데 본교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부 전문인력의 도움이 절실함(활동 장면의 비디오 촬영이나 아동 개개인의 반응에 대한 기록, 표현활동의 결과에 대한 분류 따위)

3)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또 발생한 문제는 효과적으로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못했다면 그 문제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 동물(토끼)가 연이어 죽어 나가는데 원인도 알지 못하고 궁금해 하는 아이들에게 답을 주지 못해 곤란함. → 내년에는 수의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동물의 생태와 습성에 대해 늘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 함

◎ 교사의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문제로 생체학을 통해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 작물 심는 시기나 날짜 등에 관해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김 → 전문가로부터 자세하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올해의 농사일지나 체험학습일지를 기록하며 문제를 반성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들꽃 가꾸기 활동은 변화의 양상이 다양하지 못해 학습활동이 단순함, 따라서 다양한 활동 내용을 구안하고 연계성을 갖는 영역의 활동을 통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4) 기획단계에서 기대한 전문가나 자문진의 도움은 운영단계에서 적절히 제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공동체나 전문가의 도움이 확대 또는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문가(환경교육 교수)나 환경운동단체의 도움이 환경체험학습의 내용이나 주제를 설정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활동이나 평가에 결합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움을 줌

◎ 각 영역별 전문가의 적절한 결합으로 학습활동을 진행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통해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시스템, 지역네트워크 구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향후 학교교육과정의 정체성을 잡아 나가는데 큰 영향을 미침

◎ 주제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적합한 전문가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나 주제의 변동에 대해서 공동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5) 올 한 해 동안 학년간, 주제간, 체험학습 유형간 통합적 접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효과성과 현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할까요?

◎ 참여형과 탐방형은 학년간 통합이 좋았으나 주제간 통합이나 단원 통합은 교과서 분석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한 뒤에 시행을 해야 되겠음

◎ 동물 기르기 활동은 학년간의 통합수업이 어려웠음, 공간의 협소함이나 활동의 양이 통합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역할 분담 활동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3) 프로그램 평가 단계

1) 현재 진행 중인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농어촌의 작은 학교 모델의 확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둘레의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에서는 실천 가능하다고 보나 학교장·교사들의 열정과 팀웍, 교육에 대한 신념이나 철학의 유사성이 고려된 조직 구성이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봄

◎ 농어촌의 작은 학교에서 각 영역별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풍성하게 운영하고자하는 측면에서 보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

◎ 농어촌 학교의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자연체험이나 생태교육이 귀족적인 체험학습으로 인식되고 있는 풍토에서 자연적인 환경조건을 갖고 있는 농어촌의 작은 학교에서 공교육의 이념에 맞게 생태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아울러 교육의 불평등 구조 속에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내용과 교육환경을 제공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므로 공교육 내에서 본교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해야 함

◎ 농어촌 작은 학교에서 주변 물적, 인적 자원의 적극 활용하면 일반화가 가능함

◎ 도시의 거대학교에서도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도시와 농어촌을 연결시켜주는 교육적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농어촌교육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함